

보도시점 (지 면) 2. 28.(수) 조간
(인터넷) 2. 27.(화) 12:00

여성기업 수익성·안정성·활동성 등 경영지표 전년대비 개선 - 2023 여성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-

- (전년 대비) 여성기업의 수익성(매출액 대비 순이익률 : 0.4%p↑), 안정성(부채 비율 : 29.9%p↓), 활동성(자기자본 회전율 : 0.1배↑) 모두 개선
- (중소제조기업 대비) 여성중소제조기업은 수익성(여성 4.3%, 일반 4.1%), 안정성(여성 106.6%, 일반 125.2%), 활동성(여성 2.4배, 일반 2.2배)이 높음

중소벤처기업부(장관 오영주)는 2월 28일 2023 여성기업 실태조사 결과(2022년도 기준)를 발표했다.

본 조사는 여성기업의 일반현황 및 재무성과, 교육, 애로사항 등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여성기업 지원정책 발굴 및 수립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(「여성기업법」 제7조) 발표되는 국가승인통계이다.

< 2023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개요 >

- * 국가승인통계번호 : 제393001호
- (목적) 여성기업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기초 통계 및 정책 수립 참고자료로 활용
- (대상) 한국표준산업분류(KSIC) 상의 여성이 대표자인 240,597개 기업체
 - * 매출액 5억원 이상 기업(단, 숙박 및 음식점업, 교육서비스업은 3억원 이상)
- (표본) 5,000개사(표본조사 결과 활용, 모집단 값을 추정 [(표본오차 95% 신뢰수준에 ±1.37%)])
- (내용) 기업 일반현황, 경영·성장 지표, 경영성과, 교육, 강점·약점, 애로사항 등
- (방법) 일대일 방문면접조사(전자우편(e-mai)), 팩스, 온라인 조사 등 병행
- (기준) '22년 12월 31일 기준 / (기간) '23년 7월 ~ 10월

① (경영지표) 전년 대비 수익성, 안정성, 활동성 모두 개선

여성기업은 전년에 비해 수익성(순이익률 : 4.7% → 5.1%), 안정성(부채비율 : 165.1% → 135.2%), 활동성(자기자본 회전을율 : 2.1배 → 2.2배)은 개선되었으나, 생산성(1인당 평균 매출액 : 2.32억원 → 2.05억원)은 감소하였다.

참고로 여성 중소기업은 일반 중소기업보다 수익성(여성 4.3%, 일반 4.1%), 안정성(여성 106.6%, 일반 125.2%), 활동성(여성 2.4배, 일반 2.2배)이 높고 생산성은 낮은 수준이다.

< 경영지표 비교 >

구분	여성기업				중소 제조기업	
	전체		중소기업		여성	일반*
	2021년	2022년	2021년	2022년		
수익성 (매출액 대비 순이익률, %)	4.7	5.1	4.8	5.1	4.3	4.1
안정성 (부채비율, %)	165.1	135.2	149.8	142.2	106.6	125.2
활동성 (자기자본 회전을, 배)	2.1	2.2	2.0	2.1	2.4	2.2
생산성 (종업원 1인당 평균 매출액 백만원)	231.9	204.5	207.5	187.6	236.9	304.8

* 일반 중소기업(중소기업 실태조사)과의 비교는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비교하였으므로 표본 수 등이 달라 과소 또는 과대 해석될 수 있음에 유의

② (성장지표) 수출, 연구개발투자 모두 전년 대비 확대

여성기업의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은 2.6%로 전년 대비 0.3%p 증가하였고 연구개발투자 경험은 4.3%로 전년 대비 1%p 증가하였다.

참고로 일반중소제조기업과 비교했을 때, 여성기업은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과 연구개발투자 경험이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.

< 수출 및 연구개발투자 비교 >

구분	여성기업				중소 제조기업	
	전체		중소기업		여성	일반*
	2021년	2022년	2021년	2022년		
수출액 매출액대비 수출액비중 (%)	2.3	2.6	2.0	2.0	4.8	8.2
연구개발 투자 경험율 (%)	3.3	4.3	3.3	4.3	12.0	33.5

* 일반 중소기업(중소기업 실태조사)과의 비교는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비교하였으므로 표본 수 등이 달라 과소 또는 과대 해석될 수 있음에 유의

③ (강·약점) 강점 '섬세함', 약점 '도전정신', 남성보다 불리한 분야 '일·가정양립'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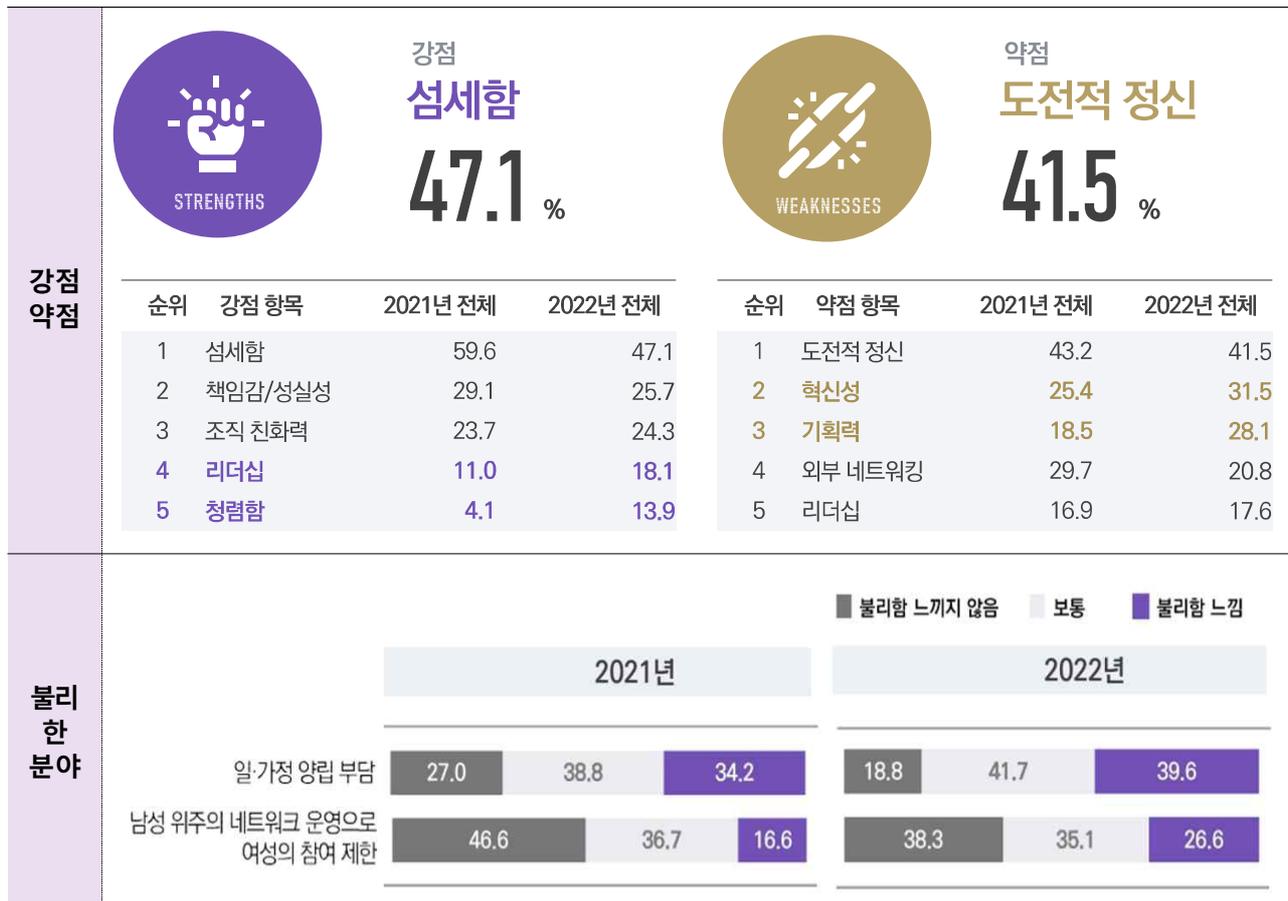
여성기업인들이 느끼는 강점 1위는 '섬세함'으로 나타났고 전년 대비 지도력(리더십)(7.1%p↑)과 청렴함(9.8%p↑)이라고 답한 비율이 높아졌다. 약점 1위는 '도전정신'이고 전년 대비 혁신성(6.1%p↑)과 기획력(9.6%p↑)을 뽑은 비율이 높아졌다.

남성기업인 대비 여성기업인이 가장 불리한 분야는 '일·가정 양립 부담'(39.6%)을 뽑았으며, 전년 대비 불리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증가하여 불리함에 대한 체감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.

아울러 남성 위주의 연계망(네트워크)으로 여성의 참여가 제한된다는 여성기업인도 전년대비 증가(16.6% → 26.6%)한 것으로 나타났다.

< 여성기업의 강·약점 및 남성기업인 대비 불리한 분야 >

(단위 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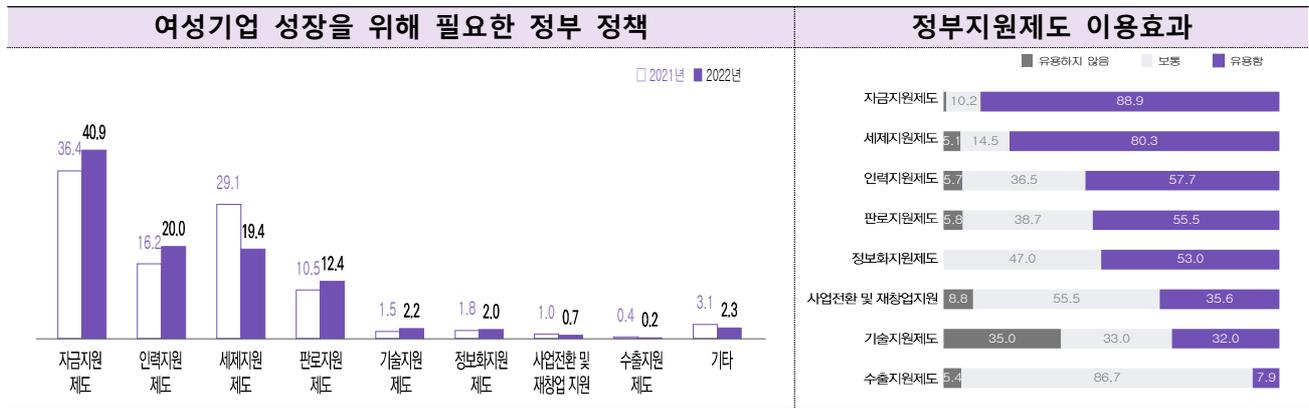


④ (지원 정책) 여성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고 효과가 있는 지원은 ‘자금지원’

여성기업이 성장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자금지원(40.9%), 인력지원(20.0%), 세제지원(19.4%), 판로지원(12.4%) 순으로 나타났고, 효과가 높은 지원은 자금지원(88.9%), 세제지원(80.3%)으로, 재정과 관련이 있는 지원의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<여성기업에 필요하고 효과 있는 정부정책>

(단위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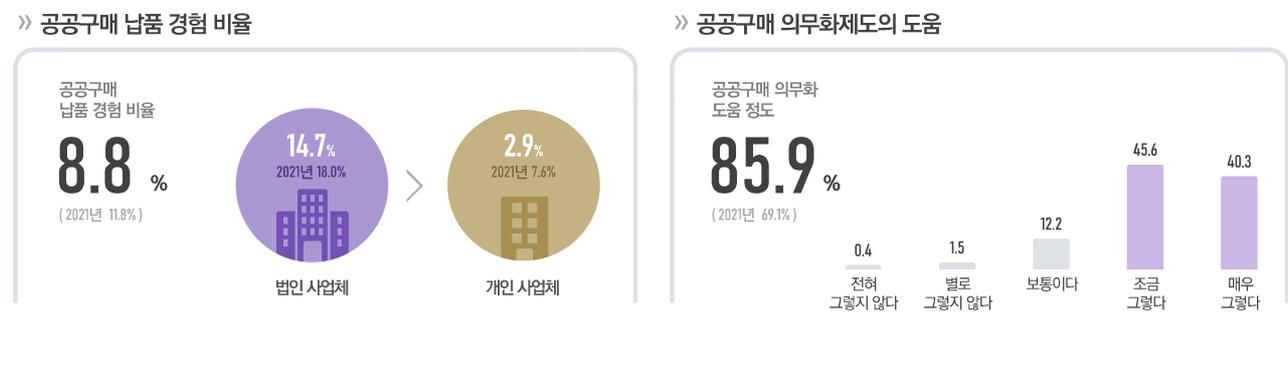
* 정부지원제도 이용효과는 각 분야별 지원제도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만 물어본 결과

⑤ (공공구매 도움) 공공구매 의무화제도가 기업활동에 ‘도움이 된다’가 85.9%

공공구매를 통해 정부기관 납품 경험이 있는 기업은 전체의 8.8%이며,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비율이 85.9%로 높은 수준이다.

< 공공구매를 통한 정부기관 납품 경험 및 도움정도 >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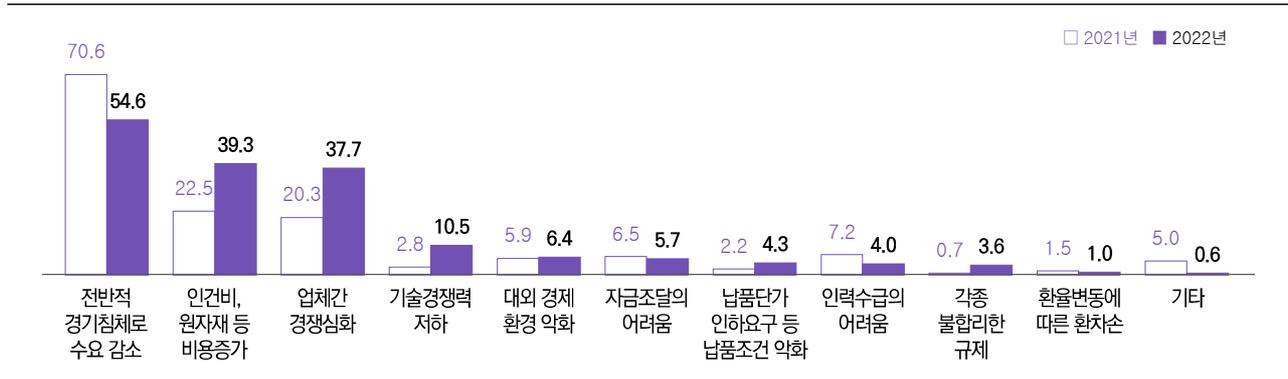


⑥ (경영활동 영향) 전년대비 ‘ 전반적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 ’는 낮아짐

경영활동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은 전년대비 ‘ 전반적 경기침체로 수요 감소 ’(54.6%)는 낮아졌으나 ‘ 인건비·원자재 등 비용증가 ’(22.5% → 39.3%), ‘ 업체 간 경쟁심화 ’ (20.3% → 37.7%)는 높아졌다.

<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 >

(단위 : %)



중소벤처기업부 박종찬 중소기업정책관은 “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위해 여성기업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”라며, “여성기업 실태 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를 면밀히 파악하여 여성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중소기업정책관실 기업환경정책과	책임자	과 장 신재경 (044-204-7444)
		담당자	사 무 관 서정남 (044-204-7427)
			주 무 관 김윤정 (044-204-7431)

